

주민자치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Strategies for Improving Communities of Practice in Korea by Cooperating with Residents Autonomy

박 성 우(Seong-Woo Park)**

<목 차>

I. 서론	III. 실증연구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설계
1. 공동체 개념의 가치지향성과 공동체 의식	2. 결과 분석
2. 공공도서관과 주민자치의 협력 필요성	3. 소결
	IV.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지역사회를 실행공동체로 환원시키기 위한 매개자인 공무원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공동체는 가치지향적인 개념으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 실행공동체, 공동체성을 가진 조직 등으로 존재한다. 공공도서관 공동체는 지역공동체의 성격과 실행공동체의 성격을 동시에 띠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동 단위의 주민자치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역사회를 실행공동체로 환원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동체의 매개자에게 필요한 공동체 의식, 업무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업무협력에 대한 필요를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동체 의식이 높거나 주민자치 업무에 많이 노출된 집단은 직무기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동체에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공동체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공공도서관 역할, 주민자치, 실행공동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

ABSTRACT

The study is to find the possibility of cooperation between civil servants as a mediators for changing a society in a region into community of practice. "Community" is the value-oriented concept and exists in a local community, a community of practice and a organization that have the characteristic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have both characteristics of local community and community of practice. And public libraries as community gives public services for neighborhood region problem-solving to people. But in Korea, Residents autonomy system in Dong gives the service to people. They all conducts the business for changing a society in a region to community of Practice. Therefore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about sense of community and necessity of cooperation in the business. The results are following: The group of higher awareness on community feels less needs to corporate the work in community than the group of lower awareness on community; The group of higher awareness on community or the group having more experience on community have lower job satisfaction. Therefore the motivation on working for community is needed for the mediator.

Keywords: Role of public library, Residents autonomy, Communities of practice,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 본 논문은 2018학년도 광주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culturepark@gwangju.ac.kr)

•논문접수: 2018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5월 28일 •게재확정: 2018년 6월 18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2), 301-326,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06.301]

I. 서론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개인화와 파편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공동체 개념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며 대규모 제도 단위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발전 중심의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의 대안으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이 국가 정책으로 적극 등장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통해 약 70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8년 올해 본격적으로 100곳 내외 지역 선정 예정에 있다(국토교통부 2017).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전에서부터 주민과 커뮤니티의 주도를 강조하며, 사전 적격성 검증에서 ‘주민주도 조직 등 구성·운영’을 6개의 검증 항목 중 하나로 삽입하였다(국토교통부 2018, 47). 이는 제3자의 경제논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지역공동체의 애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공동체 개념이 제도와 사업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게 적용되고 있는 반면, 문헌정보학 영역에서의 공동체 연구는 주로 작은도서관 사례 연구를 통한 그 효과와 결부되어 해석되어왔다(조윤희 2012; 김형호 2014; 양영균 2012; 박영숙 2003). 하지만 작은도서관에 한정된 특수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공동체 개념에 대한 제도적 움직임에 부응하여 공공도서관의 개념 자체를 공동체와 결부시켜 해석한 논문은 드물었다. Scott(2011)은 킹컨트리 도서관과 시애틀 공공도서관의 사례 연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이 공동체를 얼마나 강력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에 관한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지만 이 역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아니었다. 박성우(2016)는 실행공동체 개념을 통해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라는 ‘영역(domain)’, 이용자라는 ‘공동체(community)’, 정보서비스라는 ‘실행(practice)’ 등 실행공동체의 3가지 요소를 모두 가졌음을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사서와 사서간의 실행공동체, 사서와 이용자간에 형성되는 도서관 중심 공동체, 이러한 구분이 필요 없는 실행공동체로서의 지역사회를 설명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를 통해 박성우(2018)는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매개자(mediator)인 사서가 실행공동체에 관련된 인식을 업무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문조사하였고, 그 결과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공공도서관의 업무가 공동체와 연관이 있고 사서들이 그 필요성을 느낌을 증명하였다. 이 2개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지만, 실제 업무를 분석한 것이라기보다 공공도서관과 공동체 개념의 연관성을 해석하는 점에서 그쳤다. 단 이들 연구는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매개자의 중요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실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 형성의 주축인 ‘매개자’에게 집중한다. 박성우(2018)는 사서들이 방법을 모를 뿐 지역사회를 실행공동체로 환원시키기 위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미 동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동 단위 주민자치 체계는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공동체 형성과 광범위한 자치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형성과 자치활동의 연관성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김경준과 김성수(1998)의 연구는 지역사회 자치활동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공동체 의식 측정을 제안하였고 이후 제시된 많은 연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 중 주민자치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실질적인 자치행위에서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서재호 2013; 김학린 2017). 특히 김학린(2017)의 연구는 지역사회 조정활동에의 참여가 공동체 의식의 차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가조정인의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매개자의 지역사회 헌신 정도가 공동체 의식의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어느 정도 방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를 실행공동체로 환원시키기 위한 매개자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도서관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공동체 개념을 분석하고 공동체의 매개자가 가져야 할 핵심 요소를 탐구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이 접근하고 있는 프로그램 분야와 한국 주민자치 체계의 현행 프로그램 분야를 비교하였다. 또한 비교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매개자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와 업무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 조사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공동체 개념의 가치지향성과 공동체 의식

공동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은 곳에 일반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공동체에 대한 이종수(2015)의 설명은 공동체 개념이 존재하는 집단을 지시하는 가치중립적 지시명사라기보다 어떠한 성질과 특성을 증명하는 가치지향적 명사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적어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과 가치를 존중하고, 다원적 구성요소를 상호 존중하며, 외부세계에 대하여 호혜적 관계를 추구하는 집단을 우리는 공동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이종수 2015, 56).”

김미영(2015)은 실체로서의 ‘공동체’와 집단이나 조직이 가지는 특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을 구분하며, 현대사회에서 정의되는 많은 종류의 공동체가 실체로서의 공동체라기보다는 공동체성을 좀 더 강하게 띤 집단 혹은 조직의 유형이라고 설명한다. 즉,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2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가지는 속성에 대한 정의가 더욱 유효한 분석이다.

이는 공동체가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공동체주의’ 사상으로 더욱 각광받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비교하여 공동체주의 특징을 추출하면 연고적 자아, 덕성의 존중, 실체적 공공선의 강조, 국가와 정책의 가치지향적 비중립성에 대한 긍정적 옹호 등으로 나타난다(이종수 2015, 46-53).

공동체주의의 특성은 모두 인간의 ‘관계’를 강조한다. 단순히 이 점 만으로는 집단과 조직에서 공동체를 구별해내는 차이가 될 수 없지만, 여기에 더불어 공동체는 그 관계가 형성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사회와 집단이나 조직에서 형성되는 외재적 제도와 규범에 의한 관계가 아닌, 자연적인 애착과 덕성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가치지향적이다.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는 여러 층위로 존재한다. 첫째, 가장 추상적인 층위에서는 이념으로서의 인류공동체, 생태공동체, 민족공동체가 존재한다. 둘째, 실체로서의 공동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공동체는 개인주의에 반하는 더불어 살기로서의 사회운동으로 각광받는다. 셋째, 현대사회에서 공동체는 개인화와 파편화 상태의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실천공동체로도 존재한다. 전통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축이었던 지역이나 혈연의 조건을 뛰어넘어, 자아정체성의 실현을 위해 직업, 취미 등을 기반으로 한 소속과 연대를 형성한다(김미영 2015, 210-212).

이 중 현대 사회에서 등장하는 실천적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Lave와 Wenger(1991)에 의해서 실행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라는 명칭으로 구조화되어 정의된 바 있다. 이들은 구성주의 교육학의 관점에 의거하여 지식의 습득을 외부와의 상호작용 속에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실천공동체를 ‘공통의 영역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지적 자원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과 변화를 도모하는 공동체’로 정의한다(Wenger and Snyder 2000; Koliba and Gajda 2009; Wenger-Trayner and Wenger-Trayner 2015). 실행공동체는 3가지 영역을 갖는데, 구성원들을 모으는 관심사인 ‘영역’, 구성원의 집합 자체를 일컫는 ‘공동체’, 그리고 구성원이 영역의 문제해결/변화/즐거움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실행’이 그것이다(Wenger-Trayner and Wenger-Trayner 2015).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지역공동체와 현대사회의 실행공동체 등 2가지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공공도서관이 소재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헌신은 공공도서관의 구성원에게 필수요소이다. 한편으로 공공도서관은 정보서비스를 위한 조직이기에 업무 수행을 위한 직업 의미에서의 실행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한다(Belzowski, Ladwig and Miller 2013; Henrich and Atterbury 2010; Wyk 2005).

이 지점에서 지역공동체로서의 공동체는 지역사회 주민 중심, 실행공동체로서의 공동체는 사서 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사서는 지역사회의 주민인 동시에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자라는 점에서 양가적이다. 이런 사서의 역할중립성은 실행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

제를 해결하는 ‘매개자’로 해석된다(박성우 2018. 117-118). 매개자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실행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으로서 위계적인 리더의 개념과 구분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실행공동체의 자생력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지만 외부 규약이나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실행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공동체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켜주는 존재는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매개자는 리더와 구분되면서도 리더만큼이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또한 공동체에 속해있으면서도 공동체 밖과도 긴밀히 연결된 양가적인 존재이다(Wenger and Snyder 2000, 140; Pemerton, Mavin and Stalker 2007, 66).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더 막중한 책임을 지기에, 매개자에게는 공동체 의식이 다른 구성원보다도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공동체 의식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행위에 대해 개인에게 잠재된 심리적 기작으로, “멤버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멤버들이 다른 이와 그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 자신들의 요구가 함께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믿음(McMillan and Chavis 1986, 9)”으로 정의된다. McMillan과 Chavis(1986)은 Gusfield(1975)의 선행연구에 입각하여 공동체를 ‘지리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 2가지로 구분한다. 이런 구분은 김미영(2015)이 제시한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에 대한 가장 간단한 방식의 식별이기도 하다. 이 2종류의 공동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동체 의식은 ‘연대의식’, ‘상호영향의식’, ‘통합 및 욕구충족’, ‘정서적 연계’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박성우(2016)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도서관(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이하 LTC)’ 사례를 분석해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가 사서 개인의 내적 수련, 사서-사서 간, 사서-이용자 간, 지역사회 전체의 단계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이 중 마지막 단계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연대감과 호혜성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중재 하에 지역사회 주민의 높은 의식 수준과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역동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2. 공공도서관과 주민자치의 협력 필요성

LTC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범위 내에서 도서관의 활동을 훨씬 확장시킬 수 있도록 사서들을 훈련시킨 다양한 성과를 소개한다. 그런데 LTC의 활동은 우리나라 행정의 주민자치 활동과 유사성을 보인다. LTC의 프로그램과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개최하고 있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중 2017년 대상 및 최우수상 주민자치 사업들을 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LTC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비교((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a; 2017b; 2017c; 2017d; 2017e; ALA 2015. 재인용: 박성우 2016, 351)

구분	LTC 사례					주민자치 사례					
	플럼버스	스프링캐인 카운티	하트포드	레드 폭	로스앤젤레스 (반-이스턴판)	일동	금호1동	남촌동	서대신4동	심곡본동	상무2동
역량강화		•대안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취직스킬 진수		•10대 대상 프로그램 세미나 개최		•몸과 맘 배제건강 대학 & 꽃보다 정춘의 이 운영	•찾아가는 아파트별 마을교육 •주민자치 아카데미 •백석산/병천사원 교육 •그 외 마을배움터 사업	•국제 및 국내 민간교류 사업 추진	•일상이 즐거운 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운영 •계층별 교육 (다문화, 청소년, 전통문화)		
공동체조성/후원		•지역사회공동체 홍보·후원					•아파트별 총회	•오산의문스비 자생활동조합 설립·운영			•마을발전회 및 발,학당등아파트공동체
행사	•소셜 미디어 활용하여 보물찾기 유사 프로그램 진행		•가주민과 지역인문간 이미지 개선 간담회 •주민과 경찰간 간담회 •아동 대상 경찰 체험 이벤트 등		•10번의 지역간담회 개최 (학부모들에게 음식 제공)	•일동 100인 페스티벌 •연합장단 구성·운영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축계 개최	•호동이네 별밤캠프 축제 •어울림 한마당 축제	•지역 주민 주도 주민화합 특화축제 기획·추진	•기능공유 활성화	•심곡본동그린마을 만들기 (자원순환마을)	•쌍쌍장터 •쌍쌍두우, 쌍쌍 풍클대회 •산타마을사업
환경개선 / 시설 조성	•역입구 공원 조성 •벤치를 예쁘게 만들어	•교회와 함께 지역 공원 조성		•시장길 지원 하에 주민과 교통과 공무원 만남 •커뮤니티센터 건립	•도시 내 버려진 지역 재건하는 프로젝트 진행	•블래킹 정비사업, 숲 입목 복원사업 •협동조합마을카페 •공동육아 어린이집, 마을 아동센터 운영	•마을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유문화의 거점공간 '시약해복공유센터'			
자료제작	•시민의 삶 기록					•마을신문 발간					
취약계층 복지 /기금 조성					•독거노인요구르트 후원 "사랑은 요구르트를타고~"	•독거노인요구르트 지원사업 (어르신술산책) •수호천사 마을기금 운영	•독거노인강서 지원서비스 [살맛난데이]: 독거노인대상 무료문화강좌	•함께사는마을 나눔과배려실천으로 온기전하기: 관내취약계층물품후원 및 봉사활동	•임산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탁 감면 혜택 제공 추진	•인부확인 필요 취약계층세대 문안확인 •지역대상 마을주민팀 구성 •취약계층 주거생활개선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의제와 민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LTC의 방법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주민자치센터를 위시로 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로 구성하고 있는 체계이다. 예컨대 마을카페의 운영은 커뮤니티 센터의 형성과 연결되는데, 이는 LTC의 레드 혹은 도서관에서 수행한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과 동일한 종류의 사업이다. 들레길 정비사업이나 숲 연못 복원 사업 등 환경 개선 사업은 스포케인 카운티 도서관의 지역 청소, 하트포드 도서관의 치안불안 지역 간담회, 레드 혹은 도서관의 교통불편 지역 간담회와 동일한 절차 및 방법을 걸친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LTC의 사례에서는 사서가,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체계에서는 일반행정 공무원이 그 매개를 맡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란 지방자치가 가진 2가지 특성 중 하나의 개념이다. 지방자치가 가지는 이중적 속성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분된다. 지방정부의 지위와 형태, 권한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단체자치’는 지방정부가 이중적 지위를 가지는 형태로, 중앙정부의 지역단위 종합 지방행정기관이라는 본래의 지위와 중앙정부가 새로 부여한 자치정부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명명된다. 반대로 ‘주민자치’는 지방정부가 단일 지위를 가지는 형태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기구를 결성하여 자치를 행하는 방식으로 설명되며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설명된다(김병준 2015, 12-16).

그러나 이런 개념은 학술적으로 모호하며, 실제로 지방자치정부가 이 두 가지 속성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다. 학술적으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는 두 개의 배타적인 자치 유형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위해서 동시에 요구되는 두 가지 필요조건을 의미한다. 즉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의 공적 책임을 갖는 단체가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는 개념이 ‘단체자치’다. 동시에 해당 단체가 주민의 의사와 통체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원리를 포착하기 위한 개념이 ‘주민자치’다(곽현근 2017, 4).

주민자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와 수혜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참여를 전제한다. 이 개념은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 20주년 미래비전에서 ‘생활자치’라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었다. 생활자치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공공(詎虞) 및 공사(詎相)가 혼재된 서비스의 결정과정 및 생산 활동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체의 활동(한국생활자치연구원 2013, 14)”로도 규정된다. 생활자치는 문제해결의 주체를 제도적·국가적 권력에 의존했던 일반 주민의 무력감을 회복하는 사회운동이자 주체성을 회복한 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다. ‘주민들이 직접’ ‘자기 주변을’ 가꿔나간다는 공통적인 맥락에서, 생활자치는 대의민주주의가 보이는 민주성 결핍(democratic defici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린참여(neighborhood participation)이며 가장 적극적인 층위에서의 주민참여의 한 측면이다(곽현근 2017, 2-8; 김병준 2015, 616-620; 한상일 2003, 166). 즉,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의 한국적 비전인 생활자치는 주민들을 자치공동체로 규정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행정을 실현함에 그 목적을 둔다.

자치공동체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접점이 될 수 있다. 공동체주의가 국가와 정책에 긍정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거대담론인 국가권력에 대한 논의는 사회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공동체주의는 국가주의를 태생적으로 거부하는 자유주의가 중시하는 가치인 자치권과 비록 공동체의 규모에 따른 인식이 상이할지라도 공통된 방향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치공동체는 국가권력의 적절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자유주의자에게는 독존하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동체주의자에게는 공동체의 규모에 관한 다른 접근으로서 사회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이중수 2015, 58-59).

이제까지 공동체 개념의 가치지향성과 공동체 의식,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의 협력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공동체는 제도나 규범, 체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는 점에서 가치지향적이다. 현대 사회에 나타나는 공동체 중 실행공동체는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공동체와 혼재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봉사 개념이 정보서비스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 서비스로 더욱 확장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의 이런 서비스 확장은 우리나라 행정 영역의 주민자치에서 자치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제도적 흐름과 상통한다.

단 미국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주축이 되어 맡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총체적 서비스와 공동체의 형성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영역에서 미리 맡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자치공동체로 환원시킨다는 대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영역에서 형성된 자치공동체의 공공서비스와 공공도서관의 공공서비스가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Ⅲ. 실증연구

1. 연구설계

가. 연구 문제 및 문항 선정

공무원은 서로 업무분야가 상이하지만 지역사회를 자치공동체로 환원시킨다는 공통된 지향점을 진다. 따라서 이들의 협력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집단의 인식을 비교해야 한다. 이 인식 비교의 핵심은 ‘이들이 매개자로서 얼마나 공동체를 인식하고 있는가?’, ‘각각의 업무분야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이다. 여기에 더불어 업무협력에 대한 실질적 직무기대를 조사함으로써 협력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다면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자치 업무분야 협력 필요성’,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 등 4가지 분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집단에 따라 ‘공동체 의식’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집단에 따라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과 ‘주민자치 업무분야 협력 필요성’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1] 집단에 따라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해당 연구문제에 의거한 설문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문항 선정

구분		출처		문항	
공동체 의식		McMillan and Chavis (1986)		연대의식	5문항
				상호영향의식	4문항
				통합 및 욕구충족	4문항
				정서적 연계	7문항
업무 협력 필요성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ALA(2015) (도서관 활용 제외)		주민자치	6문항
				지역활성화	4문항
	평생학습/센터활성화			5문항	
	주민자치 업무분야 협력 필요성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유형 분류		4문항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		성과	자체개발	4문항	
		자기만족	Thompson and Phua (2012)	4문항	

공동체 의식은 실증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McMillan과 Chavis(1986)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들이 정의한 공동체 의식은 실체로서의 지역공동체와 추상적인 혹은 행위중심적인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두 공동체의 특성을 모두 가진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수준에 대한 좋은 측정 도구가 된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공동체 의식 지표(Sense of Community Index, 이하 SCI)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공동체 의식에 대한 정량화된 지표이며, 해당 연구는 이 지표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연구이다(A Community Science Project 2007). 이들이 정의한 공동체 의식 4개 항목인 연대의식, 상호영향의식, 통합 및 욕구충족, 정서적 연계의 각 특성을 요약한 것을 풀어 총 20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은 LTC에서 수행된 5개 도서관의 실천 내용을 개별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박성우(2016, 351)가 요약 제시한 것 중 도서관 내에서 조직개선을 위해 활용한 프로그램들을 제외하고 총 15개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단, 해당 문항의 구분은 ‘주민자치 업무 협력 필요성’의 4가지를 따랐는데, 그 중 ‘평생학습’ 분야와 ‘센터활성화’는 둘 다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로 방향이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였다.

‘주민자치 업무 협력 필요성’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의 평가 분야 4가지인 ‘주민자치분야’, ‘지역활성화분야’, ‘평생학습분야’, ‘센터활성화분야’ 4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위 규모 주민자치 사례 행사로서 가장 유명하며, 해당 분류 기준은 2009년부터 10년 가까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적용되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의 맥락을 이해하기 가장 편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는 2가지로 나뉘는데, ‘성과’는 업무의 편이·속도·양·질을 고려한 질문을 각각 하나씩 자체적으로 총 4개를 개발하였다. 자기만족의 문항은 직무에 관한 개인의 내적 만족감을 묻는 가장 간단하게 구조화된 문항 중 하나인 Thompson과 Phua(2012)의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직무만족을 구체화하거나 다양한 요인으로 나눈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28명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타당도를 고려한 문항을 선정하여, 선정된 5개 문항 검증에 위한 901명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직무만족에 관한 지표를 정제한 연구이다. 해당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일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일을 더욱 좋아한다. 셋째, 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나는 일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각 문항은 자신의 업무에 관한 개인의 즐거움/선호/열정/만족 등 감정적 인지에 관한 핵심 문항을 선별하였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라는 가치지향적 개념과 조합된다.

나. 연구대상 선정 및 설문 분석

공공도서관 업무와 주민자치 업무에 전제된 공동체 가치를 이해하고, 두 가지 업무 협력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 단위에서 해당 업무역량이 우수한 곳을 선정해야 했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특화서비스 역량과 주민자치 역량이 고르게 우수한 전라남도 순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공공도서관 측면에서 순천시는 어린이도서관 및 생태도서관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다. 2003년부터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을 필두로 어린이도서관 특화가 이루어졌다. 이 뿐 아니라 2017년에는 조례호수도서관이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도서관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기적의도서관이 시민공동체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은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도서관의 모델을 비가시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또한 순천시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9년 연속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자치 분야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입증된 바 있다(순천 광장신문 2013).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선정되었었고,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에 차차 선정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자치공동체로서의 역량을 입증받았다(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2014). 이러한 선행 사례들을 고려하여 순천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4월 순천시에 설문조사 협조 요청을 하였고 특히 일반행정과 도서관측에 적극 요청하였다. 그 결과 총 501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신뢰성이 결여되거나 결측값이 발생하는

등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94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2018년 4월 기준 순천시 홈페이지 기준 공무원이 1896명임을 고려했을 때, 20.8%의 표본을 획득하였다. 엑셀프로그램으로 해당 분석자료를 코딩하였고, 이 코딩된 데이터를 SPSS 21로 빈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 배치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2. 결과 분석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대, 현 거주지, 출생지, 업무분야, 근무처, 근무연차 등 7개 항목에 의거하여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였다. 그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분석

특성	유형	빈도(백분율)	합계	특성	유형	빈도(백분율)	합계
성별	남성	139(39.8)	349 (100)	근무처	시청	124(35.5)	349 (100)
	여성	210(60.2)			읍면동사무소	126(36.1)	
연령대	20세-29세	75(21.5)	349 (100)		평생학습문화센터 (도서관운영과 외)	39(11.2)	
	30세-39세	96(27.5)			도서관운영과	20(5.7)	
	40세-49세	100(28.7)			개별 도서관	7(2)	
	50세 이상	78(22.3)			기타	33(9.5)	
현 거주지	순천	337(96.6)	349 (100)	근무 연차	5년 이하	158(45.3)	349 (100)
	순천 외 지역	12(3.4)			5년 초과 10년 이하	37(10.6)	
출생지	순천	183(52.4)	349 (100)		10년 초과 15년 이하	37(10.6)	
	순천 외 지역	166(47.6)			15년 초과 20년 이하	24(6.9)	
업무 분야	일반행정(주민자치경험 峻)	122(35)	349 (100)		20년 초과	93(26.6)	
	일반행정(주민자치경험 鰓)	165(47.3)					
	사서	13(3.7)					
	기타	49(14)					

첫째, 성별은 여성과 남성이 약 6:4의 비율을 보였으며, 연령은 20대에서 50대까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었다. 현재 거주지가 순천인 사람이 337명(96.6%)로 압도적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2명(3.4%)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출생지가 순천인 사람은 183명(52.4%)이고, 순천이 아닌 사람은 166명(47.6%)으로, 외지에 연고를 두고 있거나 출생한 사람이 직업상의 문제나 다른 요인으로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업무분야는 일반행정분야가 총합 287명(82.3%)으로 압도적이었는데 이 중 주민자치 업무경험을 한 사람은 122명(35%), 그렇지 않은 사람은 165명(47.3%)이었다. 사서는 13명(3.7%)으로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고, 그 외 보건·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기타 업무분야가 49명(14%)의 응답률을 보였다. 근무처 역시 시청과 읍면동 사무소가 250명

(71.6%)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고 도서관 관련 응답자는 27명(7.7%)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외 보건소나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기타 응답자는 33명(9.5%)이었다.

셋째, 근무연차는 5년 이하가 158(45.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년 초과자로 93명(26.6%)이었다. 그 이후에 5년 초과 10년 이하 근무자, 10년 초과 15년 이하 근무자가 37명(10.6%)으로 동일했고 15년 초과 20년 이하 근무자가 24명(6.9%)으로 가장 적었다.

나. 집단별 비교분석

인구통계학적 분석 결과 집단별 비교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성별, 연령대, 출생지, 업무분야, 근무처, 근무연차 등 6개 항목이었다. 이중 업무분야는 ‘주민자치 경험 있는 일반행정’, ‘주민자치 경험 없는 일반행정’, ‘사서 및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근무처는 ‘시청’, ‘읍면동사무소’, ‘평생교육센터 및 기타’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근무연차는 ‘5년 이하’, ‘5년 초과 15년 이하’, ‘20년 초과’ 등 3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 중 공동체 의식은 전체 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가정하여 산술평균으로 집단 비교를 우선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각 구분항목별로 성별은 여성, 연령은 30대, 출생지는 순천, 업무분야는 사서 및 기타, 현 근무처는 읍면동사무소, 근무연차가 5년 초과 20년 이하인 집단이 평균이 높았다. 그러나 이 중 집단 비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표 4> 공동체 의식 전체의 집단별 비교분석

내용		구분		t값/F값	p
항목	구분항목	구분	평균		
공동체 의식	성별	남성	4.074	-.319	.750
		여성	4.101		
	연령대	① 20대	4.091	.262	.853
		② 30대	4.131		
		③ 40대	4.100		
		④ 50대 이상	4.028		
	출생지	순천	4.142	1.322	.187
		그외	4.033		
	업무 분야	① 일행(경협峻)	4.056	.466	.628
		② 일행(경협鰈)	4.086		
		③ 사서 및 기타	4.171		
	현 근무처	① 시청	4.088	.240	.787
		② 읍면동사무소	4.123		
		③ 평생교육센터 및 기타	4.052		
	근무연차	① n≤5	4.104	1.103	.333
② 5<n≤20		4.162			
③ n>20		4.001			

t값/F값 이탤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p<0.05, ** 0<0.01

따라서 분석을 세분화하여 개별 문항별로 비교하여 전체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만을 통합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5>와 같다. 유의미한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공동체 의식,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자치 업무분야 협력 필요성,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 등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부분(118, 203, 206), 집단을 형성하는 부분(207), 단체를 조직해 움직여 활동하는 부분(208, 209, 210), 문화프로그램(211, 212, 304)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 5>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구분	내용		성별			t값	p
				구분	빈도	평균		
공동체 의식	정서적 연계	118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자원을 기꺼이 투자할 것이다.	남성	139	4.014	<u>-2.025</u>	.044*
				여성	210	4.276		
공공 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자치	203	치안불안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지역의 언론사가 협력하여 치안불안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브레인스토밍의 자리 마련	남성	139	4.468	<u>-2.229</u>	.027*
				여성	210	4.757		
		206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남성	139	4.331	<u>-2.568</u>	.011*
				여성	210	4.681		
	지역 활성화	20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그룹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후원함	남성	139	4.561	<u>-2.951</u>	.003**
				여성	210	4.910		
		208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사랑방)를 건립하는 프로그램	남성	139	4.460	<u>-2.397</u>	.017*
				여성	210	4.771		
	209	도서관 밖의 관리되지 않는 잔디밭이나 도막/주취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근처 공원 등 도시 내의 버려진 공공지역을 재건하는 프로젝트	남성	139	4.676	<u>-2.408</u>	.017*	
			여성	210	4.990			
	210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벤치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배치하는 프로그램	남성	139	4.475	<u>-2.926</u>	.004**	
			여성	210	4.871			
평생학습/센터활성화	211	도시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고 도서관의 SNS를 이용해 보물을 찾는 프로그램	남성	139	3.921	<u>-2.815</u>	.005**	
			여성	210	4.324			
212	지역주민의 삶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남성	139	4.374	<u>-2.152</u>	.032*		
		여성	210	4.676				
주민자치 업무 분야 협력 필요성	센터활성화	304	센터활성화 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운영 전략 등	남성	139	4.676	-2.479	.014*
				여성	210	5.010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	성과	403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139	4.475	<u>-2.077</u>	.039*
				여성	210	4.748		

t값 이탤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p<0.05, ** 0<0.01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6>과 같다. 특이하게도, 공동체 의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욱 높게 나온 반면,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왔다. 유의

미한 차이가 있다고 나온 공동체 의식의 문항이 자신의 권위와 영향력에 관한 부분(106), 정서적 연계(119)임을 고려했을 때,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진행할수록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만남을 통해 연대와 유대를 결성할 확률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정서적 연계 문항의 경우 30대-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시기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임 등 실제적 움직임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나이가 들수록 업무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익숙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협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나이가 많을수록 상위 직급의 책임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에서의 업무 협력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표 6〉 연령대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구분	내용		연령대	평균	F값	p	사후 분석
		구분	문항					
공동체 의식	상호 영향 의식	106	나는 이 지역에서 제법 위세가 있다.	① 20대	2.373	6.528	.000**	①<② ①<③ ①<④ ②<④ ③<④
				② 30대	2.896			
				③ 40대	2.880			
				④ 50대 이상	3.321			
	정서적 연계	119	이 지역 사람들은 모임의 참여에 굉장히 민감하다.	① 20대	3.747	3.466	.016*	①<② ①<③
				② 30대	4.177			
				③ 40대	4.220			
				④ 50대 이상	3.923			
공공 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 자치	203	치안불안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지역의 언론사가 협력하여 치안불안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브레인스토밍의 자리 마련	① 20대	4.840	3.006	.030*	①>④ ②>④
				② 30대	4.792			
				③ 40대	4.590			
				④ 50대 이상	4.333			
	204	치안불안 지역의 주민과 경찰간의 간담회 자리 마련	① 20대	4.840	2.834	.038*	①>④ ②>④ ③>④	
			② 30대	4.771				
			③ 40대	4.690				
			④ 50대 이상	4.308				
	205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 공무원과 주민의 면담 주선	① 20대	4.947	3.680	.012*	①>④ ②>④ ③>④	
			② 30대	4.656				
			③ 40대	4.690				
			④ 50대 이상	4.256				
	206	지역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역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① 20대	4.813	4.346	.005**	①>④ ②>④ ③>④	
			② 30대	4.542				
			③ 40대	4.660				
			④ 50대 이상	4.128				
지역 활성화	20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그룹을 만들으로써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후원함	① 20대	5.187	5.572	.001**	①>② ①>③ ①>④	
			② 30대	4.719				
			③ 40대	4.730				
			④ 50대 이상	4.487				
209	도서관 밖의 관리되지 않는 잔디밭이나 도박/주취자들로 골머리를 앓는 근처 공원 등 도시 내의 버려진 공공지역을 재건하는 프로젝트	① 20대	5.120	2.686	.046*	①>④		
		② 30대	4.865					
		③ 40대	4.900					
		④ 50대 이상	4.577					

F값 이텔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사후분석: LSD
* p<0.05, ** 0<0.01

출생지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7>과 같다. 순천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공동체 의식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외 지역 출신들이 더욱 높았다. 특히 순천 출생자들이 심리적 안정감(102), 공정성(111)에 대해서 더욱 높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연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있어서 별다른 도움을 느끼지 않았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문항은 평생학습 분야였는데, 문화프로그램에 관련된 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순천 출생자들이 지역 연고가 높다고 전제하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게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양적 성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출생지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구분	내용		출생지			t값	p
		구분	문항	구분	빈도	평균		
공동체 의식	정서적 연계	102	이 지역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이 들고, 보호받는다는 기분이 든다.	순천	183	4.470	<u>3.564</u>	.000**
	그외	166	3.970					
평생학습 분야	통합 및 욕구 충족	111	이 지역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준다.	순천	183	4.399	<u>2.765</u>	.006**
	그외	166	4.048					
주민자치 업무분야 협력 필요성	평생학습	303	평생학습 분야: 시민교육, 문화여가, 다문화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등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반 활동 및 사업	순천	183	4.809	<u>-2.705</u>	.007**
				그외	166	5.145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	성과	403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순천	183	4.503	<u>-2.218</u>	.027*
				그외	166	4.789		

t값 이탤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사후분석: LSD
* p<0.05, ** 0<0.01

업무분야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8>과 같다. 공동체 의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협력 필요성과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전체 수치에서 주민자치 업무 경험이 있는 일반행정직이 다른 경우에 비해 필요성과 직무기대를 낮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자치 분야에서와 평생학습/센터활성화 분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주민자치 분야는 담당 일반행정 공무원의 역할, 평생학습/센터활성화 분야는 공공도서관이나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민참여의 유형 중 주민자치는 제도적 참여, 평생학습/센터활성화 등은 비제도적 참여에 가깝기 때문에 서로의 업무분담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이다.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낄수록 일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도 훨씬 높았다. 성과 자체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일의 결과에 대한 애착, 열정과 만족감 등의 부분에서 주민자치 업무를 경험한 일반행정 집단보다 그렇지 않은 집단들의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았다.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낮기에, 그 필요성에 의해 도출되는 만족감에 대한 기대치 또한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8> 업무분야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내용		업무분야	평균	F값	p	사후 분석
	구분	문항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 자치	201 도시 역 입구에 위치한 공원을 청소하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172	<u>3.274</u>	.039*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497			
			③ 사서 및 기타	4.597			
		202 스카우트 단체, 인근 교회와 협력을 맺어 도서관 인근의 지역 공원을 청소하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082	<u>3.252</u>	.040*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412			
			③ 사서 및 기타	4.452			
		204 치안불안 지역의 주민과 경찰간의 간담회 자리 마련	① 일행(경험峻)	4.352	5.669	.004**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830			
			③ 사서 및 기타	4.806			
		205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 공무원과 주민의 면담 주선	① 일행(경험峻)	4.410	<u>3.200</u>	.042*	①<②
			② 일행(경험鰈)	4.806			
			③ 사서 및 기타	4.645			
	지역 활성화	210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벤치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배치하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443	<u>4.587</u>	.011*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848			
			③ 사서 및 기타	4.887			
	평생 학습/센터 활성화	211 도시 곳곳에 보물을 숨겨놓고 도서관의 SNS를 이용해 보물을 찾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057	<u>3.242</u>	.040*	①<③ ②<③
② 일행(경험鰈)			4.097				
③ 사서 및 기타			4.548				
213 대안고등학교를 방문해 취업상담 및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180	<u>3.986</u>	.019*	①<③	
		② 일행(경험鰈)	4.442				
		③ 사서 및 기타	4.694				
214 어린이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① 일행(경험峻)	4.172	<u>3.974</u>	.020*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539				
	③ 사서 및 기타	4.694					
215 대학생 강사를 초빙하여 10대를 위한 프로그래밍 세미나.캠프를 개최	① 일행(경험峻)	4.213	<u>3.583</u>	.029*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539					
	③ 사서 및 기타	4.677					
업무 협력 시 직무 기대	성과	404 일의 결과물이 훨씬 뛰어나질 것이다.	① 일행(경험峻)	4.779	<u>3.135</u>	.045*	①<③
			② 일행(경험鰈)	4.909			
			③ 사서 및 기타	5.242			
	자기 만족	406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다.	① 일행(경험峻)	4.205	<u>4.314</u>	.014*	①<③ ②<③
			② 일행(경험鰈)	4.345			
			③ 사서 및 기타	4.726			
		407 일에 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① 일행(경험峻)	4.369	<u>4.688</u>	.010*	①<③
			② 일행(경험鰈)	4.594			
			③ 사서 및 기타	4.919			
		408 일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 일행(경험峻)	4.393	4.180	.016*	①<② ①<③
			② 일행(경험鰈)	4.721			
			③ 사서 및 기타	4.887			

F값 이텔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사후분석: LSD
* p<0.05, ** 0<0.01

근무처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9>와 같다. 단 한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중 지역활성화 항목이었다. 도서관 참여자들이 벤치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배치하는, 즉 공공미술 제작 프로젝트 사례로, 도서관 뿐 아니라 예술분야의 외부집단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 도서관을 포함한 평생교육센터 및 기타 집단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문화프로그램의 수행이 아닌 가시적 결과물을 산출해야 함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입장에서 혼자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근무처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구분	내용		근무처	평균	F값	p	사후 분석
		구분	문항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지역 활성화	210	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벤치를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공공장소에 배치하는 프로그램	① 시청	4.581	4.317	.014*	①<③ ②<③
				② 읍면동사무소	4.603			
				③ 평생교육센터 및 기타	5.020			

f값 이텔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사후분석: LSD
* p<0.05, ** 0<0.01

근무연차에 따른 차이는 다음 <표 10>과 같다. 공무원 조직 특성상 근무연차와 나이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또한 근무연차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사례들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들이 있었다. 연령대에서는 나이가 많아질 수록/적어질수록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반면, 근무연차에서는 중간관리자 역할인 5년 초과 20년 이하가 가장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었다.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연대의식의 경우에도 중간관리자 계층이 가장 높았는데, 지역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신뢰(108) 부분에서는 이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람들과의 감정적 동질성(113), 소통의 빈번성(114), 관계에 대한 긍정(115)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중간관리자 계층은 지역공동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이 지역공동체를 자신의 공동체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자기만족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408)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 외 업무 협력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업무숙련도가 낮은 5년 이하 집단들이 협력 필요성과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표 10〉 근무연차에 따른 비교분석

질문	구분	내용		업무분야	평균	F값	p	사후분석
		구분	분항					
공동체 의식	연대의식	101	이 지역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다. (지리적 구분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① n≤5	3.133	4.040	.018*	①<②
				② 5<n≤20	3.653			
				③ n>20	3.419			
	상호영향의식	106	나는 이 지역에서 제법 위세가 있다.	① n≤5	2.544	9.585	.000**	①<②
				② 5<n≤20	3.041			
		③ n>20	3.258					
	108	이 지역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줄 것이다.	① n≤5	3.962	3.221	.041*	①>②	
			② 5<n≤20	3.582				
			③ n>20	3.763				
	통합 및 욕구충족	110	내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면 금방금방 이뤄진다.	① n≤5	3.304	3.719	.025*	①<③
				② 5<n≤20	3.520			
	113	이 지역 사람들과 나는 잘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 사람들도 좋아한다.	① n≤5	3.816	4.031	.019*	②<③	
② 5<n≤20			3.612					
③ n>20			4.086					
정서적연계	114	나는 이 지역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이야기한다.	① n≤5	4.203	3.378	.035*	①>②	
			② 5<n≤20	3.816				
115	나는 이 지역 사람들과 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	① n≤5	4.513	7.685	.001**	①>②		
		② 5<n≤20	3.939					
		③ n>20	4.441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협력 필요성	주민자치	203	치안불안지역에 거주하는 거주민들과 지역의 언론사가 협력하여 치안불안지역의 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브레인스토밍의 자리 마련	① n≤5	4.829	3.698	.026*	①>③
				② 5<n≤20	4.531			
				③ n>20	4.441			
	204	치안불안 지역의 주민과 경찰간의 간담회 자리 마련	① n≤5	4.848	3.422	.034*	①>③	
			② 5<n≤20	4.551				
			③ n>20	4.452				
	205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과 공무원과 주민의 면담 주선	① n≤5	4.842	3.545	.030*	①>②	
			② 5<n≤20	4.510				
			③ n>20	4.430				
	지역활성화	20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 그룹을 만들도록 이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후원함	① n≤5	4.937	3.292	.038*	①>②
				② 5<n≤20	4.633			
	208	지역사회 커뮤니티센터(사랑방)를 건립하는 프로그램	① n≤5	4.634	4.011	.019*	①>③	
② 5<n≤20			4.797					
③ n>20			4.378					
평생학습/센터활성화	213	대안고등학교를 방문해 취업상담 및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① n≤5	4.639	6.075	.003**	①>②	
			② 5<n≤20	4.163				
			③ n>20	4.226				
214	어린이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① n≤5	4.639	3.373	.035*	①>③		
		② 5<n≤20	4.327					
		③ n>20	4.215					
주민자치업무분야 협력 필요성	지역활성화	302	지역활성화 분야: 주민자치센터의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 사회적 기업, 문화 활동, 지역 공간 활용(구도심 활용) 등 주민 주체의 지역만들기 사례, 마을만들기 사업 등	① n≤5	5.089	4.685	.010*	①>②
				② 5<n≤20	4.643			
				③ n>20	4.753			
	센터활성화	304	센터활성화 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반,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운영 전략 등	① n≤5	5.063	3.328	.037*	①>②
② 5<n≤20				4.735				
③ n>20				4.710				
업무협력시 직무기대	성과	404	일의 결과물이 훨씬 뛰어나질 것이다.	① n≤5	5.101	3.731	.025*	①>②
				② 5<n≤20	4.694			
408	일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① n≤5	4.860	3.325	.037*	①>②		
		② 5<n≤20	4.696					
		③ n>20	4.378					
				③ n>20	4.806			

F값 이탤릭체: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 사후분석: LSD
* p<0.05, ** 0<0.01

3. 소결

집단 비교 결과 나온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업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낮은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에서는 전반적으로 공동체 의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게 나왔지만, 필요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게 나왔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형성되고, 그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종전대로 처리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나이가 어린 계층은 지역주민과의 관계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자치 업무에 부담을 느껴 해당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출생지에 따른 비교분석을 했을 때, 순천시에서 태어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공동체 의식이 높았지만 업무 협력 필요성이나 직무기대는 그렇지 않은 집단이 많았다. 특히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자 홍보가 필요한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이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해당 업무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협력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간계층의 경우에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근무연차에서 중간관리자 계층인 5년 초과 20년 이하 집단은 지역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할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말을 수용하고 긍정적 감정교류를 한다는 문항을 다른 집단에 비해 제일 낮게 평가했다. 또, 근무연차의 해당 연수와 일반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30~40대 계층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모임이나 행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간계층은 실제 핵심 실무자로 실적을 내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압박과 부담 및 업무 경험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이 작용하여 지역공동체를 인식하되 그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집단은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다른 집단보다 덜 느꼈다. 반대로 사서나 기타 직렬, 혹은 평생교육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집단은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주민자치 분야의 하위로는 제도적 측면이 강한 주민자치나 지역활성화 뿐 아니라 평생교육, 센터활성화 등 기존 문화프로그램의 범위까지 넓게 포함하기 때문에 훨씬 다양한 측면에서 업무를 접근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서나 기타 집단, 혹은 평생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집단에서는 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는 주민자치 업무가 과중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 쪽은 업무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그렇지 않은 쪽은 쪽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필요성을 평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IV. 결론

공동체 개념이 내포하는 ‘좋은 삶’으로의 사회운동적 지향성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병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주민조직을 국가 정책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공동체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헌정보학 및 도서관계에서도 그간 작은도서관의 특수한 사례에 집중되어왔던 공공도서관의 공동체 개념을 확장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ALA의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인 LTC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행공동체로서 공공도서관의 확장된 역할 수행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공동체 의식을 내재한 매개자로서 사서의 중요성도 역설된 바 있다. 사서는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된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최종 단계에서, 지역주민이자 제도적 지원 양가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매개자로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LTC가 수행한 지역문제 해결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다른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지역 기반 주민 주도적 문제 해결은 마을 중심의 근린참여 개념으로서 동 단위에서의 주민자치 체계에서 ‘생활자치’의 형태로 이미 수행해온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해당 업무에서도 매개자로서 일반행정 공무원 담당자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영역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영역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 협력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매개자로서의 공무원들이 주도하여 이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와 주민자치 영역의 협력 가능성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키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자치공동체로 환원시키기 위한 문제의식을 가진 매개자로서의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공동체 의식의 정도와 각 영역에서의 유사한 업무들에 대해 얼마나 협력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이를 뒷받침하여 해석을 다면화할 영역으로 해당 업무 협력 시 직무기대를 함께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집단의 인식을 인구통계학적 구분 아래 비교하고자 하였다. 주민자치 영역 및 도서관 영역에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그 결과를 증명해온 지자체인 순천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 공동체 의식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오히려 업무협력에 대한 필요가 낮으며, 주민자치 업무에 많이 노출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나 업무 협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높거나/주민자치 업무에 많이 노출된 집단의 직무기대는 업무량을 제외하면 오히려 낮았다.

이런 결과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체감 업무과중이라는 상황을 전제해야한다. 기존에 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때 업무과중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

동체 의식이 높고 공동체 관련 활동에 익숙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업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낀다는 점은, 업무 협력이 그들에게 있어서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기보다 복잡한 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업무 발전에 대한 도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매개자로서의 사서 역할을 확립하기 이전에, 상호간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결과에서는 주민자치 업무를 경험한 일반 행정직들이 사서나 기타 직렬보다 업무 협력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었다.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는 현재 업무를 공동체 분야로 확장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주민자치 업무는 이미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사서가 주민자치 업무를 지원하고 분담할 수 있음을 선행적으로 설명해야할 필요가 있다.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업무는 특정 한 직렬만이 수행하기에는 광범위한 부분이다. 주민자치의 한 영역인 평생교육은 공공도서관의 영역과 많은 접점을 가진다. 한편으로 공공도서관은 최근 마을 아카이브 제작, 구술사 작업, 도서관 운영을 위한 주민간담회,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한 자격증사업 등 지역사회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위해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7). 하나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중복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업무협력을 통해 참여 주민의 분산이나 업무 이중화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양쪽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우선적으로 심어줄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제도적 기반 하에서 주민 주도의 자치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개자이다. 즉 국가권력과 공동체 사이에 위치한 양가적인 존재이다. 공무원 조직, 특히 지방 공무원의 순환근무체제는 이들이 완전한 지역공동체 소속이 되는 것도, 완전한 국가의 대변자가 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들의 업무 대상이 ‘지역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 자체가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 내의 연대감과 공동체성을 통해 업무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함양할 수 있다면 서로의 업무체계에 대한 원활한 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본래 목적하는 자치공동체의 형성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자치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역할담론에 관한 기초연구의 성질을 지닌다.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의 집단과의 비교가 수행된다면, 자치공동체의 형성과정 속에서 매개자로서 공무원이 가지는 역할의 정의, 자치공동체의 자생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능성이 점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a.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센터활성화 분야 상무2동 (광주광역시 서구).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3%81%EB%AC%B42%EB%8F%99.pdf>> [인용 2018. 3. 2].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b.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주민자치 분야 금호1동 (광주광역시 서구).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A%B8%88%ED%98%B81%EB%8F%99.pdf>> [인용 2018. 3. 2].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c.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주민자치 분야 일동(경기도 안산시).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9D%BC%EB%8F%99.pdf>> [인용 2018. 3. 2].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d.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지역활성화 분야 남촌동 (경기도 오산시).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B%82%A8%EC%B4%8C%EB%8F%99.pdf>> [인용 2018. 3. 2].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e.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지역활성화 분야 서대신 4동(부산광역시 서구).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4%9C%EB%8C%80%EC%8B%A04%EB%8F%99.pdf>> [인용 2018. 3. 2].
- (사)열린사회시민연합. 2017f.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관 - 평생학습 분야 심곡본동 (경기도 부천시).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B%AC%EA%B3%A1%EB%B3%B8%EB%8F%99.pdf>> [인용 2018. 3. 2].
-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추진. 201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4월 24일.
- 곽현근. 2017. 지방자치 원리로서의 ‘주민자치’ 재해석을 통한 생활자치 개념화와 제도모형 구성. 『현대사회와 행정』, 27(2): 1-29.
- 국립중앙도서관 편. 2017. 『2017 도서관 선진화 현장사례 및 논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국토교통부.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newDeal/businessPlan/generalAcceptNotice/view.do>> [인용 2018. 5. 2].
- 김미영. 2015.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여러 형식. 『사회와이론』, 27: 181-218.
- 김경준, 김성수. 1998.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23(2): 211-232.
- 김병준. 2015. 『지방자치론 (제2수정판)』. 파주: 법문사.
- 김학린. 2017. 지역사회 조정활동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분쟁해결연구』, 15(1): 107-136.
- 김형호. 2014. 지역의 독서공동체에 관한 연구 - 금천구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3 추계공동학술대회』, 2013년 10월 13일. 청도: 청도해양대학, 117-137.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2014.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현황.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businessInfo/1/link.do>> [인용 2018. 2. 24.]
- 박성우. 2016. 실행공동체 사례연구를 통한 공공도서관 역할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4): 339-358.

- 박성우. 2018. 공공도서관 실행공동체의 형성과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1): 113-131.
- 박영숙. 2003. 작은 도서관에서 마을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사람들 -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느티나무도서관. 『국토』, 260: 132-137.
- 서재호. 2013. 주민자치 활동 참여와 공동체 의식: 부산광역시 4개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의 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437-459.
- 순천시 주민자치, 9년 연속 전국 우수사례 선정. 2013. 『순천 광장신문』. 11월 6일.
- 양영균. 2012. 도시 지역공동체 형성과 작은도서관: 용인시의 사례. 『정신문화연구』, 35(2): 35-67.
- 이중수. 2015. 『공동체: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서울: 박영사.
- 조윤희. 2012.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 모형. 『디지털도서관』, 66: 3-22.
- 한국생활자치연구원. 2013. 『생활자치 합시다』. 서울: 대영문화사.
- 한상일. 2003.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함의. 『한국행정학보』 37(3): 159-180.
- A Community Science Project. 2007. *Sense of Community Index(SCI)*. <<https://www.senseofcommunity.com/soc-index/>> [cited 2018. 6. 1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5. *Case Studies: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http://www.ala.org/transforming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case-studies>> [cited 2016. 9. 10].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6b. *LTC Models for Change: Dialogue & Deliberation Resources*.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dialogue-deliberation-resources>> [cited 2018. 2. 24].
- Belzowski, Nora. F., Parker J Ladwig. and Thurston Miller. 2013. “Crafting Identity, Collaboration, and Relevance for Academic Librarians Using Communities of Practice.” *Collaborative Librarianship*, 5(1): 3-15.
- Gusfield, Joseph. R. 1975. *The community: A critical response*. New York: Harper Colophon.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16a. About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LTC). <<http://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about-ltc>> [cited 2018. 2. 24].
- Henrick, Kristin J. and Ramirose Attebury. 2010. “Communities of Practice at an Academic Library: A New Approach to Mentoring at the University of Idaho.”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36(2): 158-165.
- Koliba, Christopher. and Rebecca Gajda. 2009. ““Communities of Practice” as an Analytical Construct: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 Administration, 32: 97-135.
- Lave, Jean. and Etienne Wenger. 2010. 『상황 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 손민호 옮김. 서울: 강현출판사.
- McMillan, David. W. and Chavis, David. M.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6-23.
- Pemberton, Jon., Sharon Mavin and Brenda Stalker. 2007. "Scratching beneath the surface of communities of (mal)practice." *The Learning Organization*, 14(1): 62-73.
- Scott, Rachel. 2011.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Community Building." *Public Library Quarterly*, 30: 191-227.
- The Harwood Institute for Public Innovation. 2015. *Communities have Challenge. Libraries can Help: A Step-by-step Guide to "Turning Outward" To your Community*. <http://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LTCGettingStarted_DigitalWorkbook_final010915.pdf> [cited 2016. 9. 23.]
- Thompson, Edmund. R. and Phua. Florence. T. T. 2012. "A Brief Index of Affective Job Satisfaction." *Group & Organization Management*, 37(3): 275-307.
- Wenger, Etienne C. and William M. Snyder. 2000. "Communities of Practice: The Organizational Frontier." *Harvard Business Review*, January-February: 139-145.
- Wenger-Trayner, Etienne. and Beverly Wenger-Trayner. 2015. Introduce to communities of practice. <<http://wenger-trayner.com/introduction-to-communities-of-practice/>> [cited 2016. 11. 11].
- Wyk, Johann Van. 2005. "Communities of Practice in an academic library: a run on the wild side?" *5th ICAHIS Conference at Onderstepoort*, University of Pretoria, South Africa, 97-10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00 region will be selected as 2018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2017.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pril 24.
- "Suncheon resident autonomy is selected as best practice 9 years in a row." 2013. *Suncheon Agoranews*. November 6.
- Cho, Yoon-Hee. 2012. "A Study on a Model of the Small Library for the Formation of a Community Culture." *Digital Library*, 66: 3-22.

- Han, Sang-Il. 2003. "Different Types of American Neighborhood Particip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itizen Participation." *Korean Re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7(3): 159-180.
- Kim, Byong-Joon. 2015. *Local Self-Government*. 2nd ed. Paju: Beopmoonsa.
- Kim, Haklin.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diation Activities on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Kwang-Ju Community Mediation Center. *Dispute Resolution Studies Review*, 15(1): 107-136.
- Kim, Hyung-Ho. 2014. "A Study on Local Reading Community." *Proceedings of 2013 Autumn Joint Conference of Research Group for Global Korean Business & Culture in Jeonnam National University*, 117-137.
- Kim, Kyung-Joon. and Kim Sung-Soo. 1998. A Study on the Residents' Sense of Community in Korea. *Community Development Review*, 23(2), 211-232.
- Kim, Mi-Young. 2015. "Community Reality in High Modern Society." *Society and Theory*, 27: 181-218.
- Korea Research Institution for Local Government & Community Affairs. 2013. *Let's Do Local Government*. Seoul: DaeYoung Co.
- Kwak, Hyon-Kun. 2017. "the Conceptu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by Reinterpreting Residents Autonomy as Fundamentals of Local Self-Government and Constructing System Model." *Moder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7(2): 1-29.
- Lee, Jong-Soo. 2015. *Communities: From Utophia to Making Community Design*. Seoul: Pakyoungsa.
-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A Guideline for Registration of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newDeal/businessPlan/generalAcceptNotice/view.do>> [cited 2018. 5. 2].
- National Library of Korea eds. 2017. *2017 Library Advancement Cases and Article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Park, Seong-Woo. 2016. "A Study on the Changing Role of Public Libraries by the Case Studies of Community of Pract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4): 339-358.
- Park, Seong-Woo. 2018.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and Sustainability of Community of Practice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1): 113-131.

- Park, Yeong-Sook. 2003. "People making community culture in small library." *Territory*, 260: 132-137.
- Seo, Jae-Ho. 2013.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ous Activities and Sense of Community - Based on the Survey of Citizens Who are Living in the Boundary of 4 Community Centers in Busan Metropolitan City -.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24(2): 437-459.
- Seodaesin4-Dong(Busan Seogu)*.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4%9C%EB%8C%80%EC%8B%A04%EB%8F%99.pdf>> [cited 2018. 3. 2].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a.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Sangmu2-dong(Gwangju Seogu)*.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3%81%EB%AC%B42%EB%8F%99.pdf>> [cited 2018. 3. 2].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b.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Kumho 1-dong(Gwangju Seogu)*.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A%B8%88%ED%98%B81%EB%8F%99.pdf>> [cited 2018. 3. 2].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c.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Il-dong(Gyeonggi-do Ansan)*.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9D%BC%EB%8F%99.pdf>> [cited 2018. 3. 2].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d.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Namchon-dong(Gyeonggi-do Osan)*.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B%82%A8%EC%B4%8C%EB%8F%99.pdf>> [cited 2018. 3. 2].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e.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The Citizen Union for Open Society*. 2017f. *16th National Residents Autonomy Expo - Simgogbon-Dong(Gyeonggi-do Bucheon)*. <<http://juminexpo.or.kr/wp-content/uploads/2017/10/%EC%8B%AC%EA%B3%A1%EB%B3%B8%EB%8F%99.pdf>> [cited 2018. 3. 2].
- Urban Regeneration Information System. 2014. *Urban Regeneration Bellwether Region*. <<http://www.city.go.kr/portal/business/businessInfo/1/link.do>> [cited 2018. 2. 24.]
- Yang, Young-Kyun. 2012. "the Formation of Urban Community and Small Libraries: A case of Youngin." *Korean Studies Quarterly*, 35(2): 35-67.